

호소문 : <<어린이의 제1언어 계발-

공교육의 핵심 과제>>

이 주제에 대해 호소하는 이유는?

- * 언어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모든 어린이는 이를 공유하고 이 현실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언어를 습득하고, 배우고,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함은 흔히들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내용과 세계상과 문화와 접해 씨름하는 것이다. 사고력, 사회화, 정체성 확립과 연관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말하기와 언어는 소통과 학습의 토대이다. 그러므로 언어학습을 모든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핵심 과제이다.
- * 현지 학교 언어를 전수하는 일은 우선적인 일이다. 현지언어 능력은 그 사회에서 존속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결과가 입증하듯이 이중-다중 언어사용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지학교 언어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학교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선지식을 가진 학습자에 맞춰 수업을 적절히 세분화 한다면 그 수업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다양한 언어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들 상위의 서로 연관되는 교수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 제1언어가 학교언어가 아닌 어린이들은 학교언어를 제2언어, 간혹 제삼, 제4언어로 학습한다. 이 어린이의 가족은 이민을 왔거나 다른 언어를 쓰는 지역에서 이주 했거나 부모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이 어린이들은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로 자란다. 이는 장점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히 이중-다중언어로 자라는 노동이민 자녀의 경우 주로 단점으로 부각된다. 이는 2차(Sekundar) 1과정의 하위 그룹과 특수반(Sonderklasse)에 속한 이런 아이들을 지나치게 강조해 제시하거나 반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와 고등직업학교를 다니는 아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공립 학교가 모두를 위한 학교이고자 하는 요구에 상응하려면 학교가 이 구조적 불이익을 철폐해야 한다.
- * 제1언어로 학습하는 것은 이중-다중 언어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사고와 행동을 펼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이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 * 교육기관이 이중-다중 언어성을 계발할 때 이는 이중-다중언어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더 나아가 한 언어로 자라는 사람들에게도 장점이 된다. 다양한 언어 교육은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스위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화간 공존과 문화간 협력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 * 제일언어와 그 외 다른 언어를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 * 이민자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그들의 언어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은 전 사회적 관심사일 것이다. 이는 문화를 더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많은 국민 경제적 차원의 이득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일언어수업(현재까지 <<모국어언어문화수업>>으로 알려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타당한 일이다.
- * 제일언어 수업(<<모국어언어문화수업>>)은 아동의 언어능력과 자신감을 강화한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적응과 폭력 예방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일언어 수업은 이미 확일언어주의가 뿌리내려있는 학교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며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
- * 학교라는 기관은 언어 다양성(<<교육 엘리트>>들의 언어 다양성만이 아닌)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

호소문 <<어린이의 제1언어 계발- 공교육의 핵심 과제>>

- * 이 호소문에 서명한 기관이나 개인은 자국 언어 네 개와 그 외 많은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스위스의 언어 다양성이 막대한 잠재력과 이 언어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스위스 교육의 핵심 과제를 확신하는 바이다.
- * 그리하여 연방, 교육책임자협의회(EDK:Erziehungsdirektorenkonferenz), 칸톤, 게마인테의 교육정책과 언어정책 담당자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들이 내용적, 법적, 조직적, 재정적 면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다양한 제일 언어 수업(<<모국어언어문화 수업 : Kurse in Heimatlicher Sprache und Kultur HSK >>)을 그 운영자들과의 협력 하에 공립학교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스위스 교육책임자협의회(EDK)에서 조직적인 대책을 세워 칸톤의 차원에서 HSK 수업을 지원하는 것을 HarmoS 규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떼어 놓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하여 각 칸톤에서 이 지원을 즉각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책임자협의회(EDK)는 이 분야에 있어 중앙에서 칸톤을 통솔하면서 지원하는 어떤 직위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제일언어 연합은 연방, EDK, 칸톤, 게마인데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1. 학교 기관은 다중 언어성을 학교의 핵심사안의 일부로 만들어 이 다중 언어성을 인정하고 계발해야 한다. 제일언어 계발을 <<정규>>학교 프로그램에 소속시켜 더 이상 비중 없는 존재로 머물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관심을 가진 모든 학습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 목표는 여러 언어 능력을 길러 내며, 또한 이중, 다중 언어 아동을 학교와 사회에 융화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모든 칸톤은 HarmoS 규정 4항에 따라 모국어언어문화수업HSK을 지원하는 조직적 대책을 즉각 구체화하고 도입하고 강화해야 한다. 즉시 시행해야 할 첫 단계의 일은 제일언어수업(모국어언어문화 수업 : HSK-Kurse)을 공식 학교 건물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실시하고 정규 학습교재가 지원되고 이 수업의 성과를 성적표에 기입하는 것이다.
3. HarmoS-규정 개혁안 틀 내에서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이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 A 가정에서 학교로 입학하는 과도기, 가정을 대체하는 시설들, 오늘날의 유치원, 신설 초보학습단계(기초-기본 반 Basis-Grundstufe)에서는 제일언어를 의식적으로 계속 계발해 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제일언어 수업은 쉐쿤다(Sekundar) II과정까지 공립 학교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이중언어로 마투라(Matura)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인문고등학교와 직업학교의 선택과목으로서. 제일언어 수업을 통해 언어능력을 습득했음이 증명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한다(성적 점수, 언어 포트폴리오, 수료증).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은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B 모든 과정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제일언어 각각을 적절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교사양성 교육에 엘베ELBE(e'veil au langage et ouverture aux langues, language awareness, Begegnung mit Sprachen), 언어 포트폴리오, 통합언어교수법 구상, 공동언어교수법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제일언어 수업을 HarmoS 규정의 결과로 개발될 지역별 언어 교육 안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 C 공립학교의 모든 언어수업 과목과 제일언어(Kursen HSK)는 상호 보완하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동의 학습지도안 틀과 언어수업과 언어개발에 대한 공동의 교육적 태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제일언어수업(Kurse HSK) 교사는 특별한 고유 리소스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리소스와 능력이 공립학교에서의 협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인정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D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좋은 기본조건을 필요로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법 상의 동등함과 충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공립학교의 다중언어성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현재의 자원과 재정적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중언어성 분야와 다양한 제일언어 수업분야 각 과정의 교사를 위한 교육, 재교육, 그리고 이에 맞는 연구를 하는 것은 교육대학, 종합대학, 현재 계획중인 “언어능력센터”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연구비와 개발비가 필요하다.

4. 결론 :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의 권리를 실행하는- 공립학교의 미래는 다중언어성에 놓여 있다. 공적 교육 기관이 연고 국가와 여러 다른 언어공동체 기관과 협력 하여 제일언어수업 (Kurse HSK)에 대해 내용적, 법적, 조직적, 재정적으로 철저히 책임 진다면 이는 실현될 수 있다. 이는 Harnos-규정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무교육학교에서 행해져야 할 일이다.

2007년 9월 22일 제일언어 연합 결성회의에서 정정하고 결정.

“어린이의 제일언어 계발”연합

“어린이의 제일언어 계발” 연합의 목표와 활동

연합의 목적

“어린이의 제일언어 계발”연합(이후IGE)은 어린이, 특히 이민가족 어린이의 제일언어계발이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자리잡게 되도록 노력한다

회원

이 협회는 교육적, 교수법적인 이유와 교육정치, 언어정치, 융화정치적 이유로 협회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개인을 구성원으로 한다. ”어린이의 제일언어 계발-공교육의 핵심과제”라는 호소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기관, 단체, 개인은 회원이 된다.

목표

- * 이 호소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에 호응을 얻고 여론에 알려지도록 노력한다.
- * IGE의 목표와 요구와 논거들이 폭넓게 여론에 알려지도록 한다.
- * 스위스교육 기관 내에서 어린이의 제일언어를 계발하는 것이 연방, 칸톤, 게마인데 내 결정권을 가진 이들의 정치계획 안에 들게 한다.
- * IGE의 요구들이 인정되고 단계별로 실행되도록 한다.

구체적 활동

- * 2007년 9월 22일 IGE결성 회의에서 승인된 호소문을 스위스 공용어와 이민자 수가 많은 이민단체의 언어로 번역
- * “어린이의 제일언어 계발-공교육의 핵심과제”라는 호소문에 대해 학문 연구 기관, 단체, 개인의 서명 모집
- * IGE의 활동을 여론에 자리잡게 하고 그 목표와 요구를 알리기 위한 국내 메디엔 컨퍼런스와 여러 언어로의 매체 작업
- * 교육책임자 컨퍼런스, 연방, 칸톤 교육청, 게마인데와 도시, 교육대학, 그 외 정치, 사회, 여론 내 호소문의 요구가 해당되는 모든 단체에 호소문의 내용 로비 활동을 위한

조직과 연결

- * 여러 자료와 링크, 특히 IGE회원 단체의 링크가 올려진 프로젝트 웹 사이트 개설
- * 각 기관과 단체의 보도 기관에 활동 보고와 자료 전달

실무 조직과 재정

IEG는 활동을 조정할 책임을 맡을 실무/대표 그룹을 조직한다. 이 실무 그룹은 자발적인 조직이며 외부에 IGE를 대표할 자를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IGE회원의 총회를 소집하며 특히 호소문의 내용을 넘어서는 문제나 그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총회를 소집한다.

회원 기관이나 개인은 자발적으로, 가능한 대로 IGE의 조정 실무를 담당한다. VPOD, 문화간 교육 프로젝트(Projekt interkulturelle Bildung)는 이러한 틀 안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한다.

회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도 있다.

2007년 9월 22일 제일언어 연합 결성회의에서 정정하고 결정.